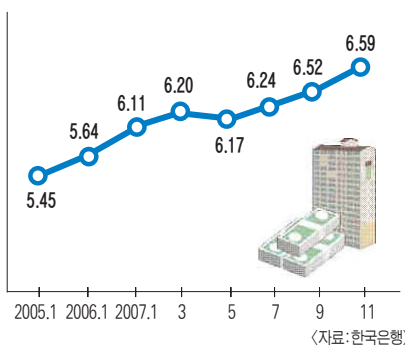


은행권 '쩐의 압박'... 서민들 울린다

■ 국내 은행 주택대출 평균 금리 (단위: %)



주택대출금리, 자고나면 올리고 또 올리고 '이자폭탄'에 고유가·고물가 까지... 한숨만

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초부터 양도성에 급증세(CD) 금리가 치솟으면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물론, 신용대출 금리도 속속 오르고 있다.

외환은행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연 7.07~8.11%로 고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44~6.70%)과 비교할 경우 최저 금리를 기준으로 1.63%포인트나 상승했다. 현 시점에서 1억원의 신규 대출을 받을 경우 연 163만원의 이자를 더 부담하는 셈이다. 기존 대출자들도 CD금리가 1년 전보다 0.96% 오른 만큼 이자 부담이 연 96만원 가량 늘었다.

이같은 상황은 모든 시중은행이 비슷하다. 지난 1년간 최저금리를 기준으로 한 금리상승폭은 ▲우리은행 0.97%포인트(6.72%~8.22%) ▲신한은행 0.97%포인트(6.82~8.22%) ▲하나은행 0.96%포인트(7.12~8.82%) ▲국민은행 0.51%포인트(6.47~8.07%) ▲광주은행 0.44%포인트(6.54~7.24%) 등이다.

문제는 이같은 금리 오름세가 최근 신용대출 금리인상으로도 확대되고 있다는 데 있다.

다. 우리은행은 최근 본점과 지점간 거래 때 적용하는 금리인 '내부 기준금리(MOR)'를 기간별로 최고 연 0.91%포인트 올렸다. 내부 기준금리가 오르면 영업점의 예금과 대출금

고금리는 CD금리 인상 탓 상반기 금리상승 지속될듯

◆대출금리 왜 오르나=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오르는 것은 주택대출의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양도성에급증세(CD)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한국증권업협회에 따르면 마감가 기준 CD금리는 전일보다 0.01%포인트 상승한 5.87%를 기록했다. 이는 2001년 2월2일(5.8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펀드와 주식 등을 통해 은행이자 이상의 수익을 맞춘 고객들이 은행으로 쏠려법 발길을 돌리지 않고 있어 은행은 자금난을 겪고 있다. 이때문에 은행권은 자금난 해소를 위

리도 오른다. 한국씨티은행도 지난달 말부터 신용대출의 기준금리를 0.14%포인트 인상하는 등 '금리 폭탄'이 주택대출에 이어 신용대출까지 전방위로 확산되는 추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자금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대거 발행한 CD와 은행채 등의 물량이 아직 소화되지 못하고 있어 대출금리 인상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해 고금리의 CD를 발행할 수밖에 없어 대출금리도 오르고 있다.

각 은행들이 외형 확장과정에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다른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채 단순히 CD와 은행채를 대량 발행하고 있어 대출금리 상승의 책임이 은행권에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연제까지 오를까=더 큰 문제는 이같은 금리상승추세가 당분간 지속되고 이에 따라 CD 금리가 향후 6%대를 넘어서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CD와 은행채는 100조원에 달한다. 따라서 이들 자금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시장금리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크다. 금리상승 기조가 적어도 금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양제철소·외주사 임직원 7천명 대상

올 '글로벌 넘버원 완성' 전략 설명회

광양제철소와 외주파트너사 임직원 7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08년도 실행전략 설명회가 지난 7일 시작으로 오는 15일까지 여섯차례 진행된다. <사진>

지난 7일 백운아트홀에서 열린 1차 설명회에서는 1천200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글로벌 넘버원 자동차강관 전문제철소 완성'의 비전 달성을 위한 실행전략과 혁신방향이 소개됐다.

광양제철소는 올해 ▲자동차 강관 650만t 생산체제 완성 ▲전

생산 프로세스 구축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 제조현장 실현 등을 4대 주요 전략으로 정하고, 혁신과 기술개발 스피드를 한층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대형 혁신과제 중 안전 및 표준준수, 6시그마를 통한 기술개발, 비주얼 플랜닝, 설비 가동률 향상과 자력엔지니어링 능력 확보 등에 관한 각 실행리더들의 발표가 이어져 참석자들의 의지를 한데 모으기도 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중소 설 운전자금 600억 지원

한은 광주전남본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본부장 박현덕)는 "오는 2월7일 설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에 관내 금융기관을 통해 총 600억원의 설 운전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자금 지원은 관내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농협 등이 중소기업에 600여원을 대출해주고 추후 한국은행이 이

들 해당 은행에 절반인 300억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 업종은 숙박업, 노래방 등 사치향락업소 및 부동산 중개업 등을 제외한 업종으로 지원 한도는 업체당 6억원 이내이며 지원 기간은 1년, 금리는 연 3.25%다. 지원 신청은 대출을 받으려는 해당 금융기관에 하면 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대학생 1학기 학자금 대출키로

농협전남본부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는 등락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원)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남도내 중앙회 모든 영업점에서 8일부터 3월31일까지 2008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을 원하는 대학(원)생은 학자금 대출 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출대상자로 선정되면 재학생과 복학생은 농협홈페이지(banking.nonghyup.com)에 접속해 인터넷을 대출을 신청하고,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농협을 방문해야 한다.

한편 농협은 인터넷 추첨을 통해 대출을 받는 학생 가운데 30명에게는 장학금 100만원씩, 50명에게는 교재구입비 20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식품·요식업체, 줄줄이 가격 인상

연초부터 밀가루 제품값 치솟자 자장면·짬뽕값 경증

"과자·아이스크림 값에서부터 자장면·짬뽕까지 안 오른 게 없네요. 라면값도 조만간 오른다고 하니..."

광주시 북구 두암동 K(45·여)씨는 "이젠 장보기도 무섭고, 가족들끼리 자주 외식하기도 어렵게 됐다"고 걱정했다.

새해 들어 밀가루 제품값이 치솟으면서 장바구니 물가도 크게 뛰어서 서민가계를 위협하고 있다.

8일 롯데제과를 비롯해 해태제과·오리온 등 제과업체가 대부분의 제품가격을 10~25% 올린데 이어 남양유업·매일유업 등도 우유·치즈 등 유제품과 음료수 가격을 5~15% 인상했다.

광주·전남지역 요식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자장면의 경우 이미 상당수 중식당이 가격을 3천~3천500

원에서 3천500~4천원으로, 짬뽕은 4천원에서 4천500원으로 500원씩 인상했다. 대표적인 배달음식 중 하나인 피자 배달업체들도 작년 말부터 잇따라 제품가격을 올리고 있다. 광

광주국세청, 가짜 세금계산서 집중 단속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경민)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광주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에 대한 부당공제 혐의가 있는 사업자 5천36명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1천259명에 대해 성실신고를 유도할 방

주시 동구 A피자는 작년 11월 말 불고기·바비큐 치킨·감자 토핑 등이 들어간 피자가격을 500~2천원씩 올린 데 이어 올해부터는 전체 피자제품값을 1천원씩, 파스타 등 사이드메뉴는 300~600원씩 인상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침이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가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자료상과 사업자에 대해 고발과 추징 등을 통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 전남·북지역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법인 개인 39만명, 법인 4만명 등 모두 43만명에 달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설 과일·육류세트 작년보다 싸

작황 좋고 수입쇠고기 판매량 늘어 5% 하락 전망

올해 설 선물세트 중에서 과일과 한우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이 작년보다 하락할 전망이다.

과일이나 견과류는 작년 작황이 좋아 물량이 늘어났고 한우 역시 수입 쇠고기 판매확대의 영향으로 산지가격이 떨어지면서 농축산물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이다.

8일 광주신세계백화점은 육류와 과일, 견과류를 중심으로 선물세트 가격이 작년 설보다 5% 가량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굴비 등 수산물 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주요 선물세트 가격이 내려가면서 각 업체들은 이를 제품을 중심으로 판매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준비 수량을 대

폭 늘렸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경우 한우 선물세트의 가격이 작년 설 시점보다 평균 4.3% 하락했다.

한우 등심소스와 불고기, 국거리 등으로 구성된 '로얄한우 2호 세트'(3.2kg)는 작년 설에는 28만원이었으나 올해는 27만5천원으로 내렸고 '한쪽 갈비'(4.8kg)는 33만원에서 31만7천원으로 하락했다. 과일 선물세트도 전반적으로 3.8% 정도 가격이 떨어졌다.

작년 설에는 8만~9만원이던 '푸름 특선과일 3종세트'는 7만8천~8만5천원이고 12만~13만원이던 '롯데사과세트'는 1만원 가량 내렸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SONY New BRAVIA

고객감사축제·TV중고보상판매

소니는 화질에 관한 한 어느 TV에도 뒤처질 거부합니다!!

이제 TV는 고가의 가전제품이 아닙니다.

- 출시가격 400만원대 X3000시리즈 | 13~30인치 실용형 울트라 HD 입체영상 특장 울트라 X3000시리즈 | 30인치 실용형 울트라
- 출시가격 100만원대 울트라 X3000시리즈 | 30인치 울트라 HD 입체영상 특장 울트라 X3000시리즈 | 30인치 울트라 HD 입체영상 특장 울트라
- 출시가격 300만원대 울트라 X3000시리즈 | 50인치 울트라 HD 입체영상 특장 울트라 X3000시리즈 | 50인치 울트라 HD 입체영상 특장 울트라

062-522-2000

쏟아붓는 돈 버는 냉·난방기 부담 없이 구입하세요!

600명 공장의 난방비 6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절감한 신 기술

난방비 1/3로 줄었다!

민정수령 계약금액 무상 지원금 혜택

4월~10월 계약 무상지원

민정수령 계약금액 무상지원

062-955-4222

080-701-7117